

광주FC 18경기 무패... '겨울양복' 박진섭 행복한 비명

K리그2 18R 안산전 1-0 승... 리그 단일 시즌 무패 타이 기록
'부상 복귀' 여봉훈 2년만에 골... 리그 반환점 1위 독주

지난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는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숨 가쁘게 진행된 안산그리너스와의 18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광주 선수들은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서포터즈들과 만세 삼창을 외친 뒤, 다섯 손가락을 편 채 환한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5연승을 의미하는 특별한 포즈였다. 광주는 이날 안산의 거친 공세를 뿌리치고 1-0 승리를 거두면서 팀 첫 5연승에 성공했다. 광주 개막 이후 무패행진 기록도 '18'로 늘었다. 이는 K리그2 단일 시즌 무패 행진 타이 기록이다. 경남FC가 2017시즌에 6월 24일까지 18경기 연속 지지 않은 게 앞선 K리그2 최고 기록이다. 전반 초반은 팽팽한 신경전이었다. 양 팀 선수들의 기싸움 속에 몇 차례 몸싸움도 펼쳐졌다. 전반 34분 안산 파울벨이 때린 공이 첫 슈팅으로 기록될 정도로 양 팀의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여러 차례 상대의 거친 움직임이 나왔지만 중심의 휘슬은 침묵했다. 하지만 답답하던 전반전 흐름을 뒤집는 결정적인 한 방이 나왔다. 주인공은 부상 복귀전에 나선 여봉훈이었다. 중앙에 있던 벨리페가 오른쪽에 있던 여봉훈에게 공을 넘겨줬다. 한 번 숨을 고른 여봉훈이 세 명의

수비수 사이에서 원발 슈팅을 날리며 안산의 골망을 흔들었다. 2년 만에 나온 여봉훈의 통산 2호골이었다. 여봉훈은 지난 2017년 4월 30일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프로데뷔골을 기록했고, 이날 광주는 1-0의 승리를 거두며 '대어'를 낚았다. 지난 5월 15일 수원 삼성과의 FA컵 16강에서 부상을 입었던 여봉훈은 이날 복귀전에서 골까지 기록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후반 6분 김정환이 하프라인에서부터 몰고 올라가면서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아쉽게 골대를 비껴갔다. 후반 28분 여봉훈이 두현석의 백패스를 받아 중거리에서 공을 떠했지만 이번에도 골대 위로 지나쳤다. 하지만 수문장 윤영국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수비가 안산의 발을 묶으면서 광주는 18경기 연속 무패를 5연승으로 장식했다. 박진섭 감독은 '겨울 양복'을 계속 입게 됐다. 팀의 무패행진이 계속되면서 박 감독은 개막전에 착용한 겨울 양복 차림으로 시즌을 지르고 있다. 박 감독은 "뒤에서 준비했던 선수들이 제 몫을 다 해준 것 같다. 흥경기이고, 기록도 세우고 연승도 하고 있어서 선수들의 질실함이 발휘된 경기인 것 같다"며 "강하게 나오는 상대라도 휘말리지 말고 페



광주FC 선수들이 지난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안산그리너스를 꺾은 뒤 팀의 첫 5연승을 기념하는 다섯 손가락 세리모니를 선보이고 있다.

어플레이어를 하자고 했다. 후반에는 상대가 거칠게 했지만 잘 버텨낸 것 같다"고 경기를 돌아봤다. 또 전체 일정 36라운드의 절반을 소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일정의) 절반을 돌았는데 이같은 성적을 내리라고는 시즌 전에 생각을 못했다"며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긴장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해서 꼭 승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6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KIA 7번 지명타자 이범호가 2회말 1사 1,2루 때 우중간으로 1타점 적시타를 치고 1루에 안착한 뒤 환호하고 있다. <KIA이거즈 제공>

'불방망이' 이범호, 벌써 그대가 그림다



대타·지명 타자 안가리고 결정적 순간 적시타
매 타석 팬들 기립박수... 덕아웃선 은퇴 만류 농담도
13일 한화화 은퇴 경기, 티켓 1만5000석 이상 팔려

'여전히 뜨거운' KIA 타이거즈 이범호의 아쉬운 작별이다. KIA는 지난 6일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기분 좋은 7-0 영봉승을 거뒀다. 이날 선발로 나온 윌랜드가 7이닝 2피안타 1볼넷 6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 주역이 됐고, 타석에서는 이범호가 빛났다. 7번 타자 겸 지명 타자로 복귀 후 처음 선발 출장한 이범호는 0-0인 2회말 1사 1,2루에서 우중간으로 공을 보내며 팀의 선취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경기가 7-0, KIA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범호는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이범호의 시즌 첫 결승타다. 이범호는 1군에 등록된 지난 4일에는 0-5로 뒤진 5회말 무사 만루에서 최원준의 대타로 들어간

초구에 우익수 방향으로 공을 보내 1타점을 올렸다. 이범호의 여전히 스윙에 팬들은 물론 덕아웃에서도 은퇴를 만류하는 농담이 나오고 있다. 오는 1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이글스와의 경기가 프로 20년 차 이범호가 치르는 마지막 경기다. KIA는 3년 연속 팀의 주장으로 역할을 하며 팀을 이끌고, 지난 2017년 타이거즈의 11번째 우승에 기여한 이범호를 위해 '굿바이 이범호: 타이거즈의 꽃, 고마웠습니다'란 주제로 13일 은퇴식을 연다. '선수' 이범호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으면서 팬들의 아쉬움도 진해지고 있다.

지난 4일 이범호가 대타로 들어서자 관중석의 팬들은 기립 박수에 이어 크게 응원가를 불러주며 '베터랑'의 복귀를 반겼다. 매 타석 이범호는 뜨거운 환호 속에 타석에 서고 있다. 선수 이범호의 마지막을 함께 하기 위한 팬들의 열기도 뜨겁다. 지난 6일 오전 11시 이범호의 은퇴식 경기의 예매가 진행됐다. 모처럼 예매 경쟁이 벌어지면서 일찌감치 1만 5000석 이상이 팔려나갔다. KIA는 은퇴식 매진을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날 챔피언스필드 2만 500석이 가득 차게 된다면 올 시즌 두 번째 매진이 기록된다. KIA는 지난 시즌 8차례 매진 사례를 이뤘지만 올 시즌에는 성적 부진 속에 지난 3월 23일 LG와의 개막전 이후 단 한 번도 관중석을 가득 채우지 못했다. 여전히 뜨거운 방망이와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 이범호는 9일부터 고향 대구에서 마지막 원정 시리즈를 치른 뒤, 안방으로 돌아와 은퇴식을 준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명기 "팬들 과분한 사랑 행복했어요"

덕아웃 T 특특

▲7번 이기자 = 본격적인 군 복귀 시즌을 보내고 있는 박준표는 지난 5월 23일 1군에 풀업된 뒤 지난 6일 LG전까지 20경기에 나와 21.1이닝 2.11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1승 4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위 용종 제거와 발목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던 만큼 각오가 남다른 박준표는 모자 안쪽에 '타이밍. 7번 이기자'는 문구를 써냈다. 박준표는 "(타자들과 싸움에서) 7번을 이기면 3할을 못치는 것이다. 타이밍만 안 주자. 차라리 빨리 맞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치홍아 등 번호 바꾸자 = 오는 13일 은퇴식을 앞둔 이범호. 지난 6일 은퇴식 경기의 예매가 시작됐고, 팬들의 예매 열기가 뜨겁다. 이에 이범호는 "25% 할인해 주셔서 더 많이 예매해주시는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KIA는 "그동안 팬들에게 받은 과분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많은 팬들에게 직접 인사 올리고 싶다"는 이범호의 뜻을 존중해 많은 팬이 은퇴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범호의 배번만큼 입장권 할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일 경기의 입장권은 25% 할인(스카이박스 제외, K3석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양)현종이는 54% 할인해 줄 것 같다"며 웃은 이범호는 지나가던 안치

홍을 보고 "야8%, 등 번호 바꿔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승택이 집에서 잤어요 = KIA가 지난 6일 NC와의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경험 많은 좌타 외야수 이명기를 보내고, 힘 있는 우타 외야수 이우성을 데려오는 조건이었다. 이우성은 앞선 주중 KIA와의 원정경기에서 2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눈길을 끈 선수. 이우성은 7일 '리커나 덕아웃 분 위기도 좋다. 동기로는 한승택이 있다. 고등학교 때 같이 대표팀에 갔었다. 어제는 승택이 집에서 잤다'고 웃었다. 그는 또 "(KIA전 때) 홈런을 칠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다. 그때는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당시에는 신경은 안 썼다. 항상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절실하다..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칠지를 생각한다"며 "장타를 치라고 데려와 주신 것 같은데 시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장타를 많이 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2017시즌 SK와의 트레이드로 KIA에서 '우승 멤버'로 활약했던 이명기는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명기는 "KIA에 와서 너무 많은 사랑받았다. 과분할 정도로 감사하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다. 많이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아홉수 탈출

한국 빅리거 3번째 통산 50승

'괴물'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즌 10승과 개인 통산 50승 동시에 달성하고 위대한 전반기기를 마쳤다. 류현진은 지난 5일(한국시간) 홈구장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한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전반기 마지막 선발 등판에서 6이닝 동안 삼진 5개를 기록하며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류현진은 승리 요건을 채우고 5-0으로 앞선 6회말 2사 2루의 타석에서 카일 갈락으로 교체됐다. 다저스가 5-1로 승리함에 따라 류현진은 지난 달 5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이래 5번째 도전 만에 10승(2패) 고지를 밟았다. 류현진은 빅리그 진출 2년 차이던 2014년 10승 5패를 거둔 이래 5년 만에 개인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우고 전반기기를 마감했다. 아울러 데뷔 7시즌 만에 박찬호(124승), 김병현(54승)에 이어 역대 코리안 빅리거 세 번째로 통산 50승(30패)도 이뤘다. 빅리그 전체 승률 1위를 질주하는 다저스의 시즌 60승(29패)째를 자신의 손으로 쌓은 류현진은 화려했던 전반기기를 마무리하고 10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 올스타 팀 선발 투수로 '별들의 무대'에 데뷔한다. /연합뉴스